

구강외과 환자 및 시술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구강외과학 전공

전주홍 · 남일우

- 목 차 -

- I. 서 론
-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III. 연구성적
- IV. 총괄 및 고안
- V. 결 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

I. 서 론

구강 및 악안면 영역에 발생하는 구강외과질환은 염증성질환, 외상, 낭종, 종양, 악관절질환, 신경성질환, 타액선질환 및 기형 또는 변형증 등으로, 환자의 안녕과 행복감을 해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선학들은 구강외과에서 다루고 있는 개개의 질환들에 대하여 많은 통계학적 보고를 하여왔다. 그러나 구강외과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질환 및 시술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는 드문 실정이다.¹⁾

이에 저자는 구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 및 그들에게 행하여진 시술에 대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구강외과 영역의 질환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여, 질병의 예방 및 앞으로의 치료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원내생의 임상교육과 전공의의 수련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던 바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987년 1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만1년간에 걸쳐서 서울대학교 병원 구강외과에 내원한, 외래환자 3670명, 입원환자 547명, 합계 42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병명진단과 시술실태 조사에 있어서는, 병리 조직학적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와 임상조건 및 환자의 의무기록지를 참고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 질병별 2)성별 3)연령별 4)월별 발생빈도로 분류하였고, 시술내역은 술자에 따라서 원내생, 인턴, 레지던트, 및 교수별로 분류, 조사하였다.

III. 연구 성적

1. 성별빈도

외래환자는 3670명중, 남자가 1792명(48.8%), 여자가 1878명(51.2%)이었으며, 입원환자는 547명중, 남자가 298명(54.5%), 여자가 249명(45.5%)이었다. 총 4217명중 남자가 2090명(49.6%), 여자는 2127명(50.4%)이었다. (표 1, 그림1)

2. 연령별 빈도

구강외과에 내원한 환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남·여 모두 2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1354명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하였다. 또한 20대에서 40대사이의 장년층이 전체의 64.1%를 점유하고 있었다.

연령	남	여	소 계
0~9	107	61	168
10~19	226	196	422
20~29	646	708	1,354
30~39	432	375	807
40~49	277	266	543
50~59	227	265	492
60~69	120	180	300
70~79	47	61	108
80~89	7	14	21
90~	1	1	2
계	2,090 (49.6%)	2,127 (50.4%)	4,217

표1. 성·연령별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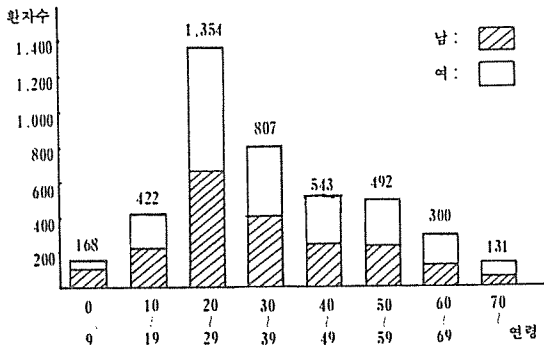


그림1. 성·연령별빈도

60세이상의 노인환자는 431명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고 있었다.(표1.그림1)

3. 월별빈도

초진월별로 볼때, 1년중 8월에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월별 환자수는 표2와 같다.

4. 질병별빈도

내원환자에 대한 초진시 내려진, 주소에 대한 진단을 분류·조사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아·지조직 질환과 매복치 및 맹출 이상이 2183예로서 전체의 51.2%를 차지하였고, 이들로 인해 발생한 치성염증이 962예로서 22.4%를 차지하였다.

외상은 총 322예로서 전체 질환중 7.5%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치아파절 및 치조골 골절이 162예로서 3.8%, 악·안면골 골절이 141예로서 3.3%, 연조직 손상이 19예로서 0.4%를 차지하였다.

기형 및 변형증은 164예로서 전체의 3.8%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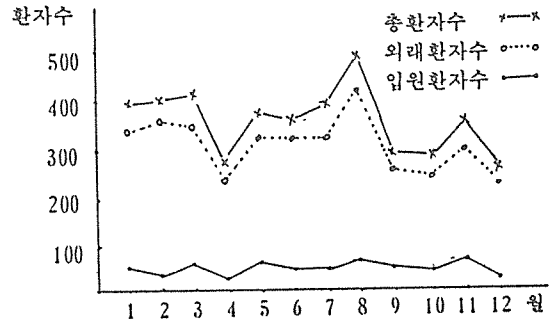


그림2. 월별빈도

분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외래	334	350	343	267	308	312	327	422	284	221	283	219	3670
입원	53	50	63	31	56	46	45	51	41	37	48	26	547
합계	387	400	406	298	364	358	372	473	325	258	331	245	4217

표2. 월별빈도

점유하고 있었으며, 순·악·구개열이 90예로서 2.1%, 악·안면 변형증이 74예로서 1.7%를 차지하였다.

낭종과 종양은 각각 3.5%, 4.1%를 차지하였으며, 종양중 양성종양이 133예, 악성종양이 41예이었다.

악관절 내장증, 악관절 강직증, 및 기타 악관절 질환은 49예로서 전체의 1.1%를 차지하였다.

3차신경통을 포함한 신경성 질환은 62예로서 1.5%를 차지하였고, 타액선 질환은 전체의 약 0.4%를 차지하였다.

또한 구강외과 질환과 함께 전신적으로 내과적 질환을 지녀서, 구강외과 질환의 처치전에 내과의와의 상담, 전처치 또는 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환자수는 183명으로서 전체의 4.3%

에 달하였다.

5. 처치내용

1) 구강외과 외래환자의 시술내역

구강외과에 내원한 환자중, 외래에서 국소마취하에 처치를 시행한 5374예 중 발치가 4693예로서 전체의 8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절개 및 배농으로서 160예로 3.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보철전 처치(치조성형술·전정성형술), 낭종적출, 양성종양절제등의 순이었다.(표4)

2) 전신마취하의 구강외과 수술내역

구강외과에 내원한 환자중, 병실에 입원한 뒤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시행한 422예 중, 구순 및 구개 성형술이 80예로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증례수	%
연조직	19	(0.4%)
의상 { 치아, 치조골	162	(3.8%)
악, 안면골	141	(3.3%)
기형, 변형증		
{ 순, 악, 구개열	90	(2.1%)
{ 악, 안면 변형증	74	(1.7%)
지치주위염	480	(11.2%)
치근단농양	215	(5.0%)
염증 { 안면, 경부농양	84	(2.0%)
골수염	87	(2.0%)
상악동염	96	(2.2%)
치아, 지지조직 질환		
{ 치아우식증	631	(14.8%)
{ 만성치주염	450	(10.5%)
매복치, 맹출이상		
{ 제3대구치	958	(22.5%)
{ 기 타	144	(3.4%)
낭종	151	(3.5%)
종양 { 양성종양	133	(3.1%)
{ 악성종양	41	(1.0%)
악관절 질환	49	(1.1%)
타액선질환(종양, 낭종제외)	15	(0.4%)
신경성질환	62	(1.5%)
기 타	185	(4.3%)
합 계	4,267	(99.8%)

표3. 질병별 빈도

시 술 내 용	증례수	%
발치 { 단순발치	3,006	(55.9%)
{ 매복치발치	1,687	(31.4%)
보철전처치 (치조성형술, 전정성형술)	143	(2.7%)
절개 및 배농술		
{ 구강내	123	(2.3%)
{ 구강외	37	(0.7%)
상악동 근치술 (Caldwell-Luc's Op.)	2	(0.04%)
골절제 예방확대술 (Saucerization for osteomyelitis)	2	(0.04%)
치아고정술	51	(0.9%)
악, 안면골 골절처치		
{ 비관혈적정복술	36	(0.7%)
{ 관혈적정복술	4	(0.07%)
낭종 적출술 또는 조대술	94	(1.7%)
양성종양절제술	62	(1.2%)
구순, 구개 성형술	2	(0.04%)
말초신경절제술	2	(0.04%)
조직생검 (Incisional Bx.)	44	(0.8%)
기 타	79	(1.5%)
합 계	5,374	(100%)

표4. 구강외과 외래환자의 시술내역

으로는 선천성 및 후천성 안모변형증에 대한 악교정술(orthognathic surgery)이 66예로서 전체의 14.9%를 차지하였다.

그리고는 상악동 근치술(Caldwell-Luc's operation), 골절의 관혈적 정복수술, 양성종양 절제술의 순이었으며, 전신적인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입원하여 전신마취하에 발치를 시행한 경우도 7예에 달하였다. (표5)

수 술 명	증례수	%
발치 및 치조성형술	7	(1.6%)
상악동 근치술 (Caldwell-Luc's Op.)	62	(14.0%)
골절제 예방확대술 (Saucerization)	22	(5.0%)
악안면 골절처치 : 관혈적 정복술	59	(13.3%)
낭종 적출술	43	(9.7%)
양성종양 절제술	44	(10.0%)
악성종양수술	16	(3.6%)
구순 구개성형술	80	(18.1%)
악교정술	66	(14.9%)
타액선 타석제거술	6	(1.4%)
말초신경절제술(S & A)	6	(1.4%)
악관절수술	19	(4.3%)
기 타	12	(2.7%)
합 계	42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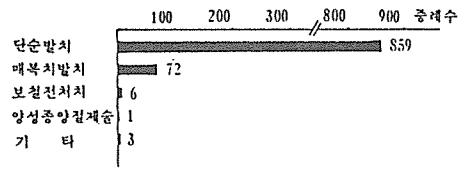
표5. 전신마취하의 구강외과 수술내역

3) 술자에 따른 시술실태

구강외과에서 시행한 시술들을 술자에 따라서 원내생, 인턴, 레지던트 및 교수별로 분류·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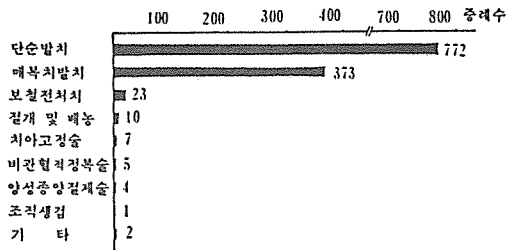
(1) 원내생

원내생이 직접 시술을 시행한 941예 중, 단순발치가 859예(91.3%)로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매복치 발치로서 72예가 원내생에 의해 직접 시술되었다. 이외에 보철전 처치와 양성종양 절제술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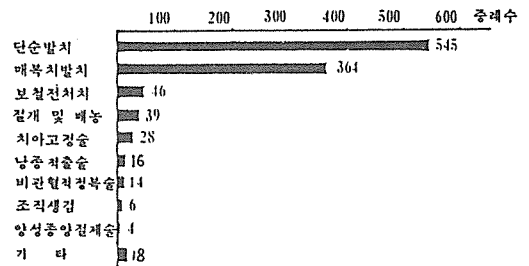
(2) 인턴

인턴이 시행한 시술 1197예중, 단순발치가 772예(64.5%)로서 가장 많았으며, 두번째로는 매복치 발치로서 373예(31.2%)였다. 다음으로는 보철전 처치, 농양의 절개 및 배농, 치아교정술 등의 순이었다.



(3) 레지던트 1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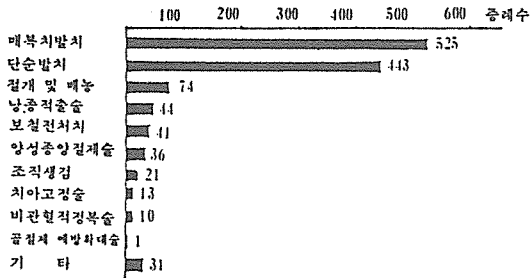
구강외과 레지던트 1년차가 시행한 시술 1080예중, 단순발치가 545예(50.5%)로서 가장 많았으며, 매복치 발치가 364예(33.7%)로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보철전 처치(4.3%), 절개 및 배농(3.6%), 치아교정술(2.6%), 낭종 적출술(1.5%) 및 골절의 비관혈적 정복술(1.3%) 등의 순이었다.



(4) 레지던트 2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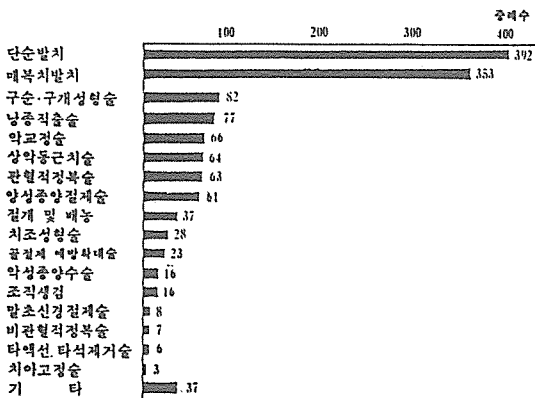
레지던트 2년차가 시행한 시술 1239예중, 매복치 발치가 525예로서 42.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단순발치가 433예로서 35.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절개 및 배농(6.0%), 낭종적출술(3.6%), 보철전 처치(3.8%), 양성종양절제술(2.9%), 조직생검(1.7%) 및 치아고정술(1.0%)의 순이었다.



(5) 교수

교수가 시행한 시술 1339예중, 단순발치가 392예로서 29.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매복치발치가 353예로서 26.4%를 이루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구순·구개 성형술, 낭종적출술, 악교정술, 상악동 근치술, 관혈적 정복술, 양성종양절제술, 절개 및 배농, 치조성형술의 순이었다.



IV. 총괄 및 고안

구강외과란 악골 및 그와 관련된 인접조직에 있어서의 질병, 손상, 및 결손과 기형에 대한 진단과 외과적 그리고 기타 보조적인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 한 분야로서; 다음과 같은 범

주를 포함하고 있다. 즉 발치, 악골 및 인접조직의 감염증의 치료, 보철전 외과적 처치, 악·안면골 및 인접 연조직의 외상성 손상에 대한 치료, 병리학적 병소의 외과적 처치(낭종, 종양 등), 치성 상악동 질환의 치료, 악관절 질환의 치료, 구강 및 악·안면골의 선천성 및 후천성 결손에 대한 수복 및 재건, 악·안면부의 변형증에 대한 외과적 교정, 타액선 질환의 치료, 안면동통 및 신경성 질환의 처치가 있다.⁶⁾

본 병원 구강외과에서 다루고 있는 질환들로서의 범주에 준하여, 분류하여본 결과, 전체 4267증례중 치아·지조직 질환, 매복치 및 맹출이상이 2183예(5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치성감염으로 962예(22.4%)를 차지하여서, 이들 두 질환이 전체의 73.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는 낭종 및 종양이 325예(7.6%)였고, 외상성 손상이 322예(7.5%), 기형 및 변형증이 164예(3.8%), 안면동통 및 신경성 질환이 62예(1.5%), 악관절 질환이 49예(1.1%)의 순이었고, 타액선 질환이 15예로서 0.4%를 차지하여,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한편, 구강외과 질환과 함께 전신적으로 내과적 질환을 지녀서, 구강외과적인 처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내과의와의 상담이나, 전처치 및 치료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환자의 수는 183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환자의 비율도 전체의 10.2%를 차지함으로써, 이들 노인환자 및 내과적 질환 소유자들에게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85년 AADS(American Association of Dental Schools)에서 발표한 구강 악안면외과 교과과정에 대한 지침중, 졸업을 하는 치과대학생은 외과적 치료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출 것을 추천하였는바,

- 1) 구강 및 악골에 대한 수술시, 국소마취를 통한 동통조절능력
- 2) 외과적 치료를 위해, 환자를 적절히 위치시키는 능력
- 3) 맹출된 치아의 단순발치
- 4) 맹출된 치아와 잔존치근의 난발치
- 5) 경조직 및 연조직 병소에 대한 간단한 조

직생검

6) 간단한 치조성형술 및 보철전 처치

7) 국소감염증에 대한 절개 및 배농

8) 약처방을 포함한 통상적인 술후처치

가 그것이다.⁵⁾ 또한 미국 치과대학 구강외과에서 임상실습교육서 요구하는 cases의 정도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발치의 경우 모든 대학에서 11개 이상을 요구하였으며(11~101개 이상), 조직생검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1~2개 정도의 case를 요구하였으며(1~11개이상), 치조골성형술은 대개의 경우 1~6개 정도의 case를 요구하였다(1~20개의 이상).³⁴⁾

본 대학 구강외과의 경우는, 원내생이 직접 시술을 시행한 941예중 단순발치가 859예로서 원내생 1인당 평균 약 7개 정도의 발치를 시행하였고, 매복치 발치는 1인당 0.6개 정도였으며, 보철전 처치는 극히 미미하였다.

구강외과 레지던트의 외래환자에 대한 시술 실태의 결과를 보면,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는 단순발치가 평균 136예, 매복치 발치가 91예, 보철전 처치가 12예, 절개 및 배농술이 10예, 낭종적출술이 4예, 비관혈적 정복술이 4예, 조직생검이 2예, 양성종양 절제술이 1예 정도이며, 레지던트 2년차의 경우는 매복치 발치가 평균 131예, 단순발치가 111예, 절개 및 배농술이 19예, 낭종적출술이 11예, 보철전 처치가 10예, 양성종양 절제술이 9예, 조직생검이 5예, 치아 고정술이 3예, 비관혈적 정복술이 3예 등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결과가 구강외과 주수술내역(표5)에 관한 자료와 함께, 전공의의 수련지침을 결정하거나, 앞으로의 구강외과 전문의의 시행에 있어서 전문의의 자격요건중 case requirement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 론

저자는 구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 및 그들에게 행하여진 시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던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한 총 4217명의 환자중 남자가 2090명

(49.6%), 여자가 2127명(50.4%)으로 여자가 약간 더 많았다.

2) 연령별로는 남·여 모두 20~29세가 가장 많았으며, 20~40대 사이의 장년층이 전체의 64.1%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60세이상의 노인 환자는 431명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였다.

3) 초진월별로 보면, 1년중 8월에 환자가 가장 많았다.

4) 질환별로는 치아·지지조직 질환과 매복치 및 맹출이상이 가장 많았으며(51.2%), 그 다음으로는 치성감염(22.4%), 낭종 및 종양(7.6%), 외상성 손상(7.5%), 기형 및 변형증(3.8%)등의 순이었다. 또한 구강외과 질환과 함께 전신적으로 내과적 질환을 지닌 환자는 전체의 4.3%에 달하였다.

5) 처치별로는

① 원내생은 단순발치, 매복치 발치가 가장 많았고,

② 인턴은 단순발치, 매복치 발치, 보철전 처치의 순이며,

③ 레지던트 1년차는 단순발치, 매복치 발치, 보철전 처치의 순이었고,

④ 레지던트 2년차는 매복치 발치, 단순발치, 절개 및 배농, 낭종적출술의 순이었다.

6) 위의 자료는 원내생의 임상교육과 전공의의 수련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연구하는데 있어, 시종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남일우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정리를 위해 적극 협조해준 구강외과 인턴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참 고 문 헌

1. 박승수 : 구강외과 영역에 발생한 중증질환의 통계적 관찰,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10권, 제12호 : 795-801, 1972

2. 윤응구 : 구강외과 질환의 통계적 관찰, 의학 다이제스트. 제4권 : 2449-2467, 1962
3. 정성창, 김규식, 이종훈, 양원식, 임성삼, 손동수, 고재승 :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 1985
4. 김철위, 김광남 : 최근 외국치과대학 교과과정 (1987-88),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987
5. Curriculum guidelines on predoctoral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J. of Dental Education 49(4); 256-257, 1985
6. Kruger, G.O.: Textbook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5th ed., St. Louis.Toronto. London, The C.V. Mosby Company, 1979

AN INVESTIGATION ON THE ORAL SURGERY PATIENTS AND THEIR TREATMENTS

Ju Hong Jeon, D.D.S., Il Woo Nam, D.D.S., M.S.D., Ph. D.

Departmen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uthor has studied on the various diseases occurring in the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 for the year of 1987 at the Department of Oral & Maxillofacial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diseases diagnosed and treated have been analyzed according to each disease such as inflammatory, traumatic, cyst, tumor, neoplastic, deformities and so on, in order to get accurate information on the diseases of the oral & maxillofacial region and the information might be helpful to plan the education programmes for students, and interns and residents.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The sex distinction and the percentage of occurrence rate as follow
Male 2090 (49.6%)
Female 2127 (50.4%)
2. To study compare with the age, both male and female patients showed the highest ratio at the 20-29 age group, and the percentage of the 20-49 age group is 64.1% and the percentage of geriatric patients over 60 years old is 10.2%.
3. To study compare with the month (the patient came first time), August was most abundant in a year.
4. To study compare with the disease, dental-periodontal disease, impacted tooth and eruption abnormality are the most prevalent (51.2%), and next is odontogenic infection (22.4%), cyst & tumor (7.6%), traumatic injury (7.5%), and anomaly or deformity (3.8%). The number of medically compromised patients with oral surgery problems is 183 (4.3%).
5. Classifying the treatments according to the operator group,
 - 1) For students(senior class), simple extraction showed the highest ratio, next is surgical extraction.
 - 2) For interns, simple extraction showed the highest ratio, next is surgical extraction, pre-prosthetic surgery (alveoloplasty and vestibuloplasty).
 - 3) For first year-residents, simple extraction showed the highest ratio, next is surgical extraction, preprosthetic surgery.
 - 4) For second year-residents, surgical extraction showed the highest ratio, next is incision & drainage, cyst enucleation.
6.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education programmes for students, and interns and residents.